



■ 《라틴아메리카 지리》를 통하여 본 지리학계의 라틴아메리카 연구

김 희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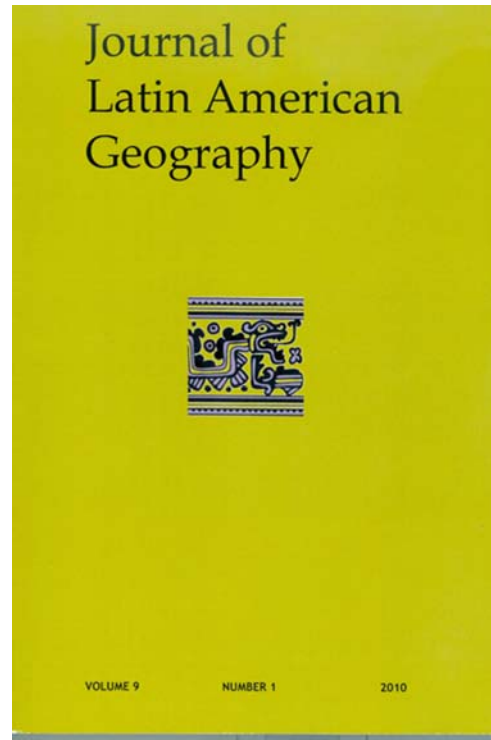
미국의 지리학은 해외지역연구의 초창기부터 지역연구의 기본 학문으로서 다양한 지역에 대한 방대한 양의 연구물을 축적해 왔다. 지리학 내의 한 계통학문을 전공하고 특정 지역을 자신의 필드로 삼는 지리학의 전통에 따라 다수의 지리학자들이 해외지역, 특히 라틴아메리카 지역을 자신의 필드로 삼아 왔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관한 연구를 별도의 해외지역연구로 다루지 않고 지리학의 한 부분으로, 라틴아메리카를 지리학자가 연구하는 필드 중의 하나로 다루어 온 경향이 강하다. 특히 유럽과는 다른 미국 특유의 문화지리학적 전통을 세운 사우어(Carl O. Sauer, 1889~1975)가 라틴아메리카 지역을 필드로 삼은 것은 미국 지리학자들의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자연스러운 관심을 유발하였다.

따라서 미국 지리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리학계의 라틴아

메리카 연구 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지리학계에서 라틴아메리카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최초의 학술지인 《라틴아메리카 지리(Journal of Latin American Geography)》의 연구경향을 통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지리학계의 라틴아메리카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지리학계의 오랜 연구 활동과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개방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 지역을 전문으로 다루는 《라틴아메리카 지리》가 발간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1963년 미국 지리학대회에서 라틴아메리카 분과가 최초로 개설되었다. 그 목적은 라틴아메리카 지역전문가들 간의 협력과 교류를 도모하는 것이었다. 이후 1969년 라틴아메리카와 관련된 지리학적 연구, 학습,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전국 규모의 라틴아메리카 관련 학술대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970년부터 독립적인 조직과 구성원을 지닌 학회(Conference of Latin American Geographers)를 개최하였다. 《라틴아메리카 지리》는 이 학회의 뉴스레터를 기원으로 하며,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로 유명한 미국 텍사스 대학에서 발행된다. 2002년 창간호가 발행된 이래 2004년까지 연 1회, 2005년부터는 연 2회씩 발행되고 있다.¹⁾



학술지 《라틴아메리카 지리》 제9권 표지

1) 웹페이지는 <<http://www.utexas.edu/utpress/journals/jlag.html>> . 'Project Muse' 를 통해 본문을 볼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 지리》는 미국에서 발행되고 있지만 전 세계의 지리학자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특히 라틴아메리카 지리학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영어 이외에도 스페인어 및 포르투갈어 논문을 허용하고 있으며 지리학 이외 사회과학분야 연구자들의 투고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지리》는 지리학적 관점에서 라틴아메리카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본 저널에 실리는 주제들은 현재 지리학 전반에서 다루는 주제들이 주를 이루지만, 라틴아메리카의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주제들 또한 다수 포함되어 있다. 우선, 지리학 고유의 주제라 할 수 있는 경관과 환경은 라틴아메리카 지역 연구의 기본이 되고 있다. 식민시기 유럽인의 도래와 경제양식의 변화로 인한 라틴아메리카의 경관 및 환경의 변화는 지리학자들의 주요한 관심사다. 나아가 라틴아메리카의 식민시기와 현대의 토지제도는 경관과 함께 지리학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는 분야다. 또한 개발의 과정에서 파괴되는 전통 문화 및 자연의 문제에 대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하기도 한다. 이에 라틴아메리카의 미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성장한 에코투어리즘(ecotourism)이 과연 개발과 보전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혹은 그러한 것이 허상에 그칠지가 지리학자들에게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다.

한편, 라틴아메리카의 경제 성장 방향과 지역 간 격차는 지리학자들에게는 매우 흥미롭고도 기본적인 주제다. 《라틴아메리카 지리》는 세계화(globalization)를 제국주의와는 다른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세계화의 다양한 특성, 그로 인한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결과 등에 대한 연구를 게재하였다.

지리학자들에게 도시의 변화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다. 특히,

라틴아메리카 도시는 스페인 식민지배의 역사적 영향력이 두드러짐으로 역사지리의 입장에서 흥미로운 주제이며,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나타나는 불량주택 지구는 도시·사회·경제 분야의 지리학자 모두가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부문이다. 또한 NAFTA의 실행 이후 나타난 미국-멕시코 국경도시의 변화와 미국 남부 도시의 히스패닉 인구의 증가로 인한 도시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변화 또한 주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사회문제, 특히 이주와 젠더의 문제는 사회지리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원주민 여성뿐 아니라 멕시코를 비롯한 특정 국가의 여성, 마킬라도라의 노동자 계급의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 행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라틴아메리카의 주요한 사회 문제에 대한 연구들이 투고되고 있으며, 라틴아메리카의 치안 문제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치안에 관한 연구물에서 연구자들은 선진국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국제 테러의 문제 못지않게 라틴아메리카의 환경적 위험, 사회간 갈등이 더욱 심각함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입장에서 라틴아메리카와 관련하여 주요한 이슈가 되는 문제들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국의 높은 의료수가로 인한 라틴아메리카 지역으로의 의료관광의 확대, 마킬라도라 산업의 입지, 미국으로의 노동이주 문제 등이 그에 해당한다.

라틴아메리카 지역 연구에는 역사·사회·경제 부문을 연구하는 지리학자들의 참여율이 높은 편이지만, 자연지리 전공자들의 참여 또한 두드러진다. 라틴아메리카의 토지 이용 변화 및 그로 인한 환경의 변화에 대한 지형학자들의 연구가 다수 투고되었다. 범람원의 분석은 물론이고 호소의 화분 분석을 통한 과거 환경의 변화, 지하수 연구 등도 주요 연구 주제들이다. 자연지리학 전공자들은 랜드셋 자료(Landsat data), 원격탐사 표본추출(remote

sensing sampling) 자료, 그리고 토양 코어링(coring)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고 있으며, 다수의 자연 및 인문 지리학자들이 계량적인 분석 방법과 국가지리정보시스템(GIS) 기법을 연구에 이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라틴아메리카의 특수성이 더욱 강조된 주제를 다룬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연구,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내의 국제 노동 이민 등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고추, 옥수수, 커피 등 라틴아메리카 주요 작물의 이동경로를 유전자변이를 통하여 살펴보기도 하고, 작물의 재배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한 연구되고 있다.

본 저널의 논문들이 주로 다루고 있는 스케일을 살펴보면, 대부분 우리가 ‘지방’이라 인식하고 있는 지역을 단위로 하고 있다. ‘지방’은 문화, 역사, 사회, 언어, 생활양식 등에서 비슷한 속성을 지니므로 하나의 동일한 지역으로 인식되는 지역 단위, 즉 등질지역의 하나다. 이는 타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이 라틴아메리카 전체 혹은 국가를 주요 단위로 삼는 점과는 다른 점이다. 연구 주제로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국가는 멕시코다. 이는 연구자 다수가 미국 학자임을 감안한다면, 멕시코는 현재 미국 사회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국가이며, 미국 지리학자들이 가장 오랜 기간 천착한 주제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칠레 등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경제적·사회적으로 두드러지는 국가들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지리학에서는 현장 경험, 즉 답사를 중요시하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에 본 저널에서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영화 및 자료에 대한 리뷰를 다수 제공하고 있다.

또한 라틴아메리카 현지의 연구물에 매우 높은 가치를 두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발행되었으나 영어권 저널에서 다루지 않은 저서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

김희순 -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